

출산률 최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교육홍보이사 오영택

출산률 한국 1.17%, 일본 1.31%, 미국 2.01%
라는 신문보도를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애 낳기를 싫어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나라가 일본, 미국보다 출산률이 저조하다고 하니 국가 백년대계를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대단. 일본, 싱가포르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민을 받지 않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출산률 저하로 가난한 이웃 나라인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에서 자녀가 많은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민을 받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자녀 하나 낳기 정책과 아들을 선호한 결과 현재 결혼적령기의 여성이 부족하여 북한 여성들을 아내로 맞아들인다고 한다. 남미에서는 애 도둑이 많다고 한다. 미국으로 1명당 1천 ~ 2천원을 받고 수출 아닌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 확보전쟁이 암암리에 국가간에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인이 일본에서 애를 낳으면 출산보조비 300,000

엔과 일정기간 분유값을 국가에서 지급한다고 한다. 어떤 한국여인은 일본에서 애 둘을 낳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출산계획을 세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보다 출산률이 높은 일본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출산장려정책을 세운 것을 보니 한편으로 부럽기까지 하다. 60~70년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무리하게 정관수술을 강요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은 것이 엇그제 같은데 이젠 출산장려정책을 써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생리대나 기저귀 소비세 인하 여부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라디오 방송을 들은 적이 있다. 이 정도의 문제 해결방식으로는 출산률을 높일 수는 없을 것이다.

가임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있고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살수 있게 되다 보니 직장 다니는 며느리 앞에서 시부모가 손주 안아보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임신하게 되면 상사눈치 보아야 하고, 커다란 죄라도 지은 양 배를 가려야 하고, 낳고 나서 는 사교육비에 멍들고 있는 현실을 당신들이 책임지

겠는가' 하고 반문하면 딱히 할말이 없다.

학력이 높은 여성일수록 사회진출이 높고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애 낳기를 꺼린다. 우리는 임신하면 배부른 모습을 보기 싫다하여 가리고 다녔다.

지금 외국의 임신부들의 패션을 보면 만삭의 임신한 모습을 아무거리낌 없이 드러내 놓고 다니며 이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출산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임신하여 배부른 모습을 부끄러워 감추는 옷차림이 아닌 당당하게 드러내 놓고 다니는 패션이 되고, 출산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쌓일 때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자연스레 올라가고 노인인구비율은 감소할 것이다.

